



인. 터. 뷰.

## 직지 자원봉사자 반종홍씨

지난 5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파주출판단지에서 개최된 파주어린 이책잔치. 행사기간 동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다목적홀에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주관 아래 우리나라의 활자 역사를 돌아보고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고인쇄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이 마련되었다. 10일간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컸다. 모두가 소중한 개인 시간을 쪼개어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무려 6년째 한결같이 직지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반종홍씨 역시 그 가운데 한 명이다.

### 2001년부터 6년째 직지도우미

지난 5월 11일 오후 1시. 다목적홀 내에 위치한 인쇄문화역사 전시관. 다른 자원봉사자 한 명과 함께 반종홍씨가 초등학교생들로 보이는 한 무리의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는 아이들이 직접 복제본인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판과 훈민정음 목판위에 인쇄체험을 하는 것을 돕고 있는 중이다.

“옳지. 아주 잘하네. 종이에 먹이 잘 스며들도록 끌고루 문질러 보렴”이



# “직지의 세계화를 위한 밀알될 것”

따금씩 자신이 직접 활판에 먹을 묻혀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한 두 번 겪은 솜씨가 아닌 듯 손길 하나하나에 능숙함이 묻어난다. 선명하게 글귀가 찍힌 종이를 아이들에게 건네주며 그는 친절하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다. “이게 뭘지 아니? 바로 ‘직지심체요절’ 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이란다.”

파주어린이책잔치 행사가 중반부쯤에 이르던 지난 5월 8일. 반중홍씨는 자원봉사를 위해 급히 중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현재 청도(靑島)에서 청도시황자하중의원이라는 의료원을 운영하며 일년중에 절반 가량은 중국에 머물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지 관련행사가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참여한다는 그는 5월 11일부터 폐막일까지 파주어린이책잔치 고인쇄 전시관의 후반부 일정을 맡았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런 뜻 깊은 일에 빠질 수 없죠. 자원봉사는 제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 직지 그리고 충주와의 특별한 인연

충주시의회에서 38년간 근무하며 공직에 몸담았던 반중홍씨는 누구보다도 직지와 충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각별하다. “마침 제가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에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직지의 간행장소인 흥덕사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저는 흥덕사지가 있는 흥덕구 운천동에 살고 있었지요”

보건사회국장, 사회경제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특히 양로원, 요양원, 꽃동네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일에 대한 욕심이 유별나기도 했지만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을 중요시했기에 이른 아침 출근해 이튿날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하지

만 그때 느꼈던 보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 치료차 건너 간 중국서 의학에 깊은 관심

앞만 보면서 일에 매달렸지만 막중한 업무량과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혈압과 당뇨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 1999년에 반씨는 38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물러나 곧 바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다.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청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중에 중국의 연결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연변자치주의학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많은 의학연구소들이 본초강목과 같은 중국의학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그곳은 우리의 동의보감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의학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이곳에서 1년간 치료활동을 병행한 결과 그는 예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았다. 98kg에 육박하던 체중도 지금은 78kg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0kg 가까이 감량에 성공한 셈이다. “원인은 결국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의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압, 경락 마사지처럼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발달해 있다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를 우리나라에도 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반씨는 청도시에 의료원을 설립했다. 그는 이곳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종 의학정보를 수집, 연구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4년 후엔 중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 중국어 통역 위해 '제1기 자원봉사대' 지원

의학연구와 함께 반씨가 새롭게 도전한 분야는 중국어 공부였다. 이미 수준급의 영어와 일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평소 어학에 흥미가 컸던 이유도 있지만 중국의 각종 의학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현재 그는 일상 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중국어가 직지와 인연을 다시 이어준 계기가 됐다. 국내에 들어와 있던 2001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충주지역신문에 직지 홍보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된다. 평소 직지에 대한 애정이 깊기도 했지만 특히 반씨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중국어 통역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이고 일찍이 우리와 함께 인쇄기술이 발달했던 나라여서인지 청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문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소개할 통역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더욱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시절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두터웠던 당시 고인쇄박물관 김종덕 관장은 반씨의 자원봉사 지원을 누구보다 반갑게 맞았다. 그는 이렇게 ‘제1기 자원봉사대’에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위에서부터.  
반중홍씨가 중국 심양시에서 찍은 시조 묘사진.  
중국반씨마을 판야오촌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앞줄 중앙이 반중홍씨)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당선후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미국으로 떠나기전 가졌던 환송식

## “직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도울 것”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의료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에 매진하고 있던 2006년 10월. 그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자신과는 두 살 터울의 사촌동생인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대한민국 초유의 쾌거였으니 가족친지들의 기쁨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렇듯 누구보다 반 총장의 당선을 기뻐하는 그이지만 항상 허물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했던 사촌동생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난 해 12월 26일 KBS홀에서 열렸던 취임기념 신년 음악회에서 본 이후로는 다시 만나질 못했습니다. 건강하고도 훌륭하게 임기동안 UN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믿는다고 전해줬습니다”

반씨는 최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UN 본부에서의 직지 전시회 추진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고인쇄박물관 라경준 학예연구원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지 전시와 관련된 계획 초안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제수씨(유순택 여사)가 조카딸이 출산을 앞둔 관계로 국내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을 전해줬어요. 아마 반 총장에게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직지 전시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파주어린이책잔치 일정을 끝낸 반중홍씨는 오늘 6월 8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치원 기자 kow@print.or.kr